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자기조절과 리더십간의 관계 연구: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분석

박미숙* 안효진**

Relationship between Peer Interaction, Self-regulation
and Leadership of Young Children:
Analysis on Mediating Effect of Self-Regulation

Park, Mi Suk Ahn, Hyo Jin

본 연구는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과 자기조절, 리더십 간의 관계를 밝히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조절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의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만 4-5세 유아 211명이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근무한 교사 대상으로 질문지를 조사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 분석 하였다. 분석은 SPSS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검증하여 다음 결과를 얻었다. 첫째, 유아의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자기조절, 리더십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또래상호작용은 유아 리더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자기조절은 유아 리더십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또래상호작용은 유아 자기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래상호작용이 유아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자기조절은 유의한 매개효과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리더십 교육에 있어 주목해야 할 요소로서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과 자기조절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 주제어 :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자기조절, 유아 리더십

* 본 논문은 2015년 한국보육지원학회 논문을 확장한 것임.

** 제 1저자: 인천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E-mail : bmk0222@hanmail.net)

*** 교신저자: 인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E-mail : jinnywjd@hanmail.net)

I. 서론

21세기 들어 도래한 지식정보화 시대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타인을 배려하며,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나가는 이른바 새로운 리더의 모습을 필요로 하고 있다. 과거의 리더의 모습은 높은 교육을 받고 고도의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이들이 지도 체제를 구축하고, 다수의 사람들은 주어진 일이나 과제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왔지만, 현재는 다양한 능력과 지식을 갖춘 개개인이 리더가 되며, 각자의 분야에서 저마다의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요청받고 있다(김성숙, 2009; 김정호, 2006). 더 나아가 최근에는 경쟁이 아닌 협동과 공유의 개념으로 확장해서 다루어지고 있다(이광자, 2014).

유아기는 사회화 과정을 시작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유아교육기관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 첫 집단으로 가족을 벗어나 사회적 관계망을 넓혀가는 시기로 많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전 시기보다 생활 범위가 넓어진 유아는 또래관계를 통해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김영미, 김현주, 2015; 최소영, 신혜영, 2015).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하며 발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리더십의 모습은 성인 뿐 만 아니라 청소년, 아동과 유아에게까지 요구되는 인간상이다. 또래들 사이에서 리더의 위치를 갖는 유아는 다른 유아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집단 활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발전을 이끈다(Arnott, 2013). 특히 유아기에는 자신을 알고 소중히 여기고, 가족, 또래와 함께 원만하게 지내고,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고, 사회에 관심을 갖고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기초 능력과 인성을 배워야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보건복지부, 2013). 이에 유아 시기부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동하고, 공유하는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도록 리더십 교육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이미나, 정주선, 2012).

유아들의 리더십에 대한 중요성과 리더십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유아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성숙, 2009; 박연경, 2009; 이명숙, 2006; 이연실, 2010; 이채호, 정유정, 2008; 최인수, 2008; 허태근, 2015). 여러 연구 중 유아 리더십은 유아들의 사회적 관계와 연관되어 진행이 되었다. 특히 또래와의 활동들은 이른 시기에 갈등과 협상을 경험할 기회를 갖게 하며, 결과적으로 유아의 타협 능력과 상호성을 개발시켜 준다고 볼 수 있다(박인전, 2012; 이채호, 이찬숙, 2009; 최수경). 강인숙과 문혁준(2012)은 리더십은 또래 간 소통과 상호작용의 산물로서 유아의 속해 있는 집단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으로 타인과 더불어 화합하며 집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았다. 유아들은 부모나 교사, 또래와의 접촉을 통해 사회적 능력의 기초를 형성하며, 특히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평등하고 상호적인 관계의 사회적 능력을 형성한다. 사회적·정서적 학습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주변 환경을 배려하며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신중하게 내리려는 태도로 함께 길러주는데(Zins & Elias, 2007; Coryn, Spybrook, Evergreen, & Blinkiewicz, 2009; Totan, 2014), 또래와의 관계는 이 학습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유아들의 리더십과 사회성을 살펴본 이채호, 이찬숙(2009)의 연구에서 또래에게 우호적인 감정 표현과 행동을 보이는 유아들에게는 친사회적인 리더십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이화정(2013)은 또래 집단에서 수용되고 인정받는 경험이 유아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과 사회적

만족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유아들의 또래 상호작용이 리더십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결국, 유아리더십은 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관계와 상호 교환적인 소통을 전제로 하며 타인 중에서도 특히 또래와의 접촉이 유아의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유아리더십은 유아 집단의 또래와 함께 감정을 공유하며 이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유아들의 사회적 관계나 사회성 발달, 또래간의 상호작용은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하거나 통제하는 자기조절과 연관이 있다고 선행연구들은 밝히고 있다(김규수, 2008; 서기남, 2009; 이혜상, 정유정). 자기조절이란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의 태도나 행동을 통제하는 것으로, 유아기에 습득해야 할 필수적인 발달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이순규, 1994). 자기 조절 능력은 상황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해가며 문제 상황을 해결해가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은 유아들의 자기 조절 능력을 유아들의 리더십과 관련된 하나의 설명 변인으로 살펴보고 있다. 예를 들어, 최미숙과 홍성희, 임연자(2013)는 유아의 자기조절과 리더십을 살펴본 연구에서 유능한 유아 리더는 부정적 정서와 충동적 행동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을 포함하는 사회적 유능감이 높고, 또래와의 상호관계에서 자신의 인지 및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자기조절이 뛰어난 유아일수록 친구관계에서 주도적일 가능성이 높았다고 밝히고 있다. 유사한 결과를 이연실(2010)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자기조절의 하위변인들이 놀이성과 리더십의 관계에서 강력한 매개효과를 보이며 유아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노인순(2012)은 어머니의 자율적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이 유아의 리더십 변인과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하였고, 박민영(2014)은 유아의 자기조절과 어머니의 명령적 언어통제가 유아의 리더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보면, 유아의 리더십은 또래 상호작용 및 자기조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의 리더십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또래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때 유아의 자기조절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강화되어 리더십의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매개 변인이 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즉 유아의 리더십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또래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때 유아의 자기조절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강화되어 리더십의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매개 변인이 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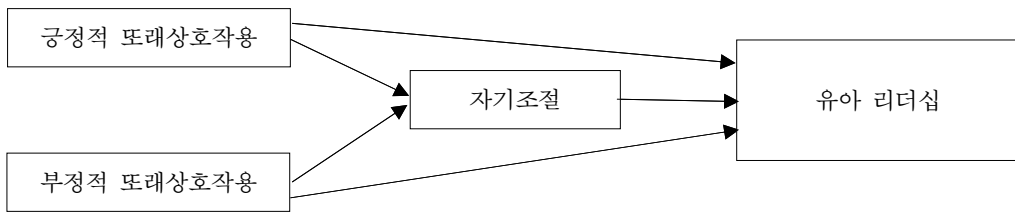
유아 또래의 상호작용과 자기조절이 유아 리더십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과 리더십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자기조절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변인이 리더십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 특히 이 영향 관계에서 자기조절이 갖는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이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또래, 교사, 부모와의 다양한 경험을 등을 통하여 리더로서 자신을 확인하고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유아 리더십에 대한 자기조절과 같은 개인 특성변인, 또래의 상호작용과 같은 환경 변인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리더십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과 자기조절은 유아의 리더십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 필요성과 목적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자기조절 및 리더십 간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자기조절은 유아 또래상호작용이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가?



[그림 1]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자기조절·리더십 간의 인과관계 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유치원 5개 원과 어린이집 5개 원에서 근무하는 만 4, 5세 담당 담임교사 25명 과 해당 교사의 담당 학급 유아 250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에 선정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국공립 민간 직장어린이집 및 유치원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동의 하고 교사가 담당하는 학급 유아 중 관찰자가 출석부를 토대로 임의 선정한 교사 1명당 유아10 명씩 총 250부를 배부하였고, 이 중 216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질문지 중 한 문항이라도 누락된 질문지는 제외하고 선정된 최종 211부로 84.8%의 회수율을 보였다. 최종 연구대상은 211명 이었다. 구체적으로 만 4세 유아는 109명(51.7%), 만5세 유아는 102명(48.3%)이었다. 또한, 성별 은 남아 120명(56.9%), 여아 91명(43.1%)으로 구성되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250)

연령	구분	n	%	성별	구분	n	%
		만 4세	109		51.7		남아
만 5세		102	48.3	여아	91		43.1
합계		211	100	합계	211		100

2. 자료 수집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14년 11월 둘째 주부터 2014년 12월 첫째 주까지 약 4주에 걸쳐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연구대상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하여 각반 담임교사에게 질문지 내용 및 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 및 조정과정을 거쳤다. 교사들에게 연구목적을 소개하고, 각 평정척도에 응답하는 지침을 설명 한 후 해당 학급에 속한 유아들의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과 자기조절, 그리고 유아 리더십에 대해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때 교사에게 최근 2개월 동안의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평균적인 일상 행동을 중심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3. 측정 도구

1) 또래상호작용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을 검사하기 위해 Fantuzzo, Coolahan, Mendez, McDermott와 Sutton-Smith(1998)의 ‘PIPPS(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를 수정·보완하여 최혜영(2004)이 제작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유아 또래상호작용 검사도구는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행동 12문항,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행동 8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는 각 문항에 대하여 평소에 유아가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행동을 근거로 ‘전혀 아니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영역별 아동의 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검사도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결과,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은 .87,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은 .9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검사도구는 신뢰할 만 하다고 볼 수 있다.

2) 자기조절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아 자기조절 검사도구는 양옥승(2006)이 개발한 교사용 유아 자기조절 검사도구를 2013년에 수정 보완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양옥승은 2006년에 인지조절과 정서조절에서 총 86문항으로 구성된 유아 자기조절 검사도구를 개발하였으나, 2013년에 검사도구를 수정, 통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옥승이 2013년에 수정한 유아 자기조절 검사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인지적 조절 21 문항, 정서적 조절 33문항 등 총 54문항, Likert 5점 평정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유아의 자기조절 평정은 담임교사가 유아의 평소 관찰한 행동결과를 바탕으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유아 자기조절 검사도구의 신뢰도 계수(α)를 산출한 결과, .9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자기조절 하위영역의 인지조절은 .94, 정서적 조절은 .95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아의 자기조절 검사도구는 신뢰할 만 하다고 볼 수 있다.

3) 유아 리더십

유아의 리더십을 검사하기 위해 정희옥, 박병기, 최성욱, 강일국(2003)의 KEDI(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초등학생용 지도력 진단도구 개발연구를 근거로 서기남(2009)

이 유아기 특성에 맞게 용어를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유아 리더십 검사도구는 성취감 10문항, 주도력 7문항, 비전 8문항의 3개 요인 25개 문항, Likert 5점 평정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리더십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유아 리더십 평정은 담임교사가 유아의 평소 관찰한 행동결과를 바탕으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유아 리더십 검사도구의 신뢰도 계수(α)를 산출한 결과, .97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리더십 하위영역의 신뢰도 계수 역시 .91~.95로 매우 높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아 리더십 검사도구는 신뢰할만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도구의 신뢰도 계수가 하위요인의 경우 .60, 전체의 경우 .80 이상이면 신뢰할만한 도구라고 제시하고 있다(고종욱, 류철, 2011).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집된 질문지를 코딩화하여 통계 프로그램인 SPSS Statistics 21 for Windows 프로그램과 AMOS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처리하였다.

첫째, 관찰변수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통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추정에는 측정변수가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를 때 정확한 미지수의 추정을 가능하게 해 주고 적절한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다변량 정규분포의 가정을 일부 벗어난다고 해도 미지수 추정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모형의 적합도 평가 지수로 χ^2 , GFI, NFI, CFI, RMSEA 등을 이용하였다.

넷째, 최종모형에 기초해 Bootstrapping 분석으로 잠재변수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자기조절·리더십 간의 상관관계

먼저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자기조절, 리더십 간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아래 <표 2>과 같다.

연구 변인의 상관 범위는 -.38~.86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각 연구변인들 간에 관계성이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유아 리더십과 긍정적 또래 상호작용($r=.80, p<.001$) 및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r=-.43, p<.001$) 그리고 자기조절($r=.85, p<.001$)은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조절과 긍정적 또래 상호작용($r=.86, p<.001$) 및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r=-.42, p<.001$)은 높은 상관을 보여 리더십, 긍정적 또래 상호작용,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 자기조절 변인 간 유의미한 상관정

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관관계에 의한 이론 모형은 논리적으로 그 구성이 적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 자기조절 · 리더십 간의 상관관계 (N=211)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자기조절	리더십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38***	-		
자기조절	.86***	-.42***	-	
리더십	.80***	-.43***	.85***	-

*** $p < .001$

2.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 자기조절 · 리더십 인과모형 검증

앞서 실시한 상관관계분석에서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자기조절, 리더십 간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상관관계 결과로는 독립변인들이 유아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제한점을 해결하고 유아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적 배경 및 상관관계분석결과를 토대로 유아 발달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그림 1과 같은 가설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1 참조). 본 연구모형에서는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자기조절, 리더십 척도를 각 하위영역별로 구분하지 않고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자기조절→리더십의 연구모형1,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자기조절→리더십의 연구모형2의 두 개의 연구모형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널리 사용되는 ML 추정법은 전형적으로 연속변수에 대한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일변량 정규성과 다변량 정규성 등 두 가지 수준에서의 정규성 점검을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점검하였으며, normal 옵션을 활용하여 분포의 정규분포 가능성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3> 관찰변수의 기술통계 (N=211)

관찰변수	M	SD	왜도	첨도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3.44	.99	-2.1	-.91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2.47	1.07	.33	-1.08
자기조절	3.55	.92	-2.0	-1.02
리더십	3.62	.97	-.52	-.93

변인들의 평균은 최소 2.47에서 최고 3.62, 표준편차의 평균은 최소 .92에서 최고 1.07이었으며, 왜도는 절댓값 최소 .20에서 최대 .52, 첨도는 절댓값 최소 .91에서 최고 1.08의 값을 보였다. 측정변인의 표준왜도가 3보다 작고 표준첨도가 10보다 작으면 구조방정식 모형 하에서의 정상 분포 조건이 충족된다(문수백, 200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의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에서 다변량 정규분포의 기본가정이 만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통해 모형 적합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Chi-square 검증 외에도 다양한 적합성 지수를 함께 고려하였다. Chi-square 값은 적합도 지수 중 유일하게 통계적 분포를 고려하는 지표이기는 하나, 이 검증의 검증력이 표본의 크기에 매우 민감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Chi-square의 *p*값이 .05 이하라고 해서 모형 전체의 적합도가 낮아진다고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홍세희, 2000).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수로 대표적인 지표로는 χ^2 (카이자승), 기초적합지수(GFI, Goodness of Fit Index), 표준적합지수(NFI, Normed Fit Index), 비교적합지수(CFI, Comparative Fit Index), 근사원소평균자승잔차(RMSEA, Root 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평가 지수로 χ^2 , GFI, NFI, CFI, RMSEA 등을 이 용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산출한 결과, 일반적으로 χ^2 / df 의 값이 보수적으로 2 이하 일 때, 수용 가능한 권장 수준은 5이하 일 때, 카이자승 통계량의 한계를 수정하기 위해 개발된 근사원소평균자승잔차(RMSEA)는 통계치가 .10 이하일 때 수용할만한 모형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주어진 모형이 전체 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기초적합지수(GFI), 표준적합지수(NFI), 비교적합지수(CFI) 등의 적합도 지수는 대개 .90 이상 일 때 좋은 모형으로 간주하고 있다(노형진, 2011; 문수백, 2009).

<표 4>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지수	$\chi^2 / df(p)$	GFI	NFI	CFI	RMR	RMSEA
기준	2-5	≥.90	≥.90	≥.90	≤.05	≤.10
연구모형1 (긍정포래)	105.20/25 (.000)	.908	.955	.965	.027	.082
연구모형2 (부정포래)	121.13/25 (.000)	.901	.943	.954	.039	.091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본 연구모형1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df=4.21$, GFI=.908, NFI=.955, CFI=.965, RMSEA=.082로 나타났고, 연구모형2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df=4.85$, GFI=.901, NFI=.943, CFI=.954, RMSEA=.091로 나타나 적합지수가 권장수준을 충족시켜 가설적 모형이 자료에 잘 적

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유아 리더십에 대한 또래상호작용과 자기조절의 직·간접효과 검증

또래상호작용과 자기조절 그리고 리더십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고, 또래 상호작용이 긍정적 또래 상호작용과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으로 구성되어 연구 모형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을 독립변인으로 지정된 것을 연구 모형1로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을 독립변인으로 지정한 것을 연구 모형2로 구성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연구모형에 대한 직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연구 모형1에서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이 자기조절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877, p<.001$), 자기조절이 유아 리더십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beta=.831, p<.001$). 하지만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이 유아 리더십에 미치는 직접효과($\beta=.092, p>.05$)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모형2에서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이 자기조절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447, p<.001$), 자기조절이 유아 리더십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beta=.896, p<.001$). 하지만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이 유아 리더십에 미치는 직접효과($\beta=-.036, p>.05$)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검증

		직접효과	B	β	S.E.	t	p
연구모형1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 유아리더십	.091	.092	.078	1.173	.241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 자기조절	.821	.877	.043	18.940***	.000
	자기조절	→ 유아리더십	.881	.831	.092	9.551***	.000
연구모형2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 유아리더십	-.033	-.036	.036	-.910	.363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 자기조절	-.388	-.447	.056	-6.864***	.000
	자기조절	→ 유아리더십	.954	.896	.057	16.682***	.000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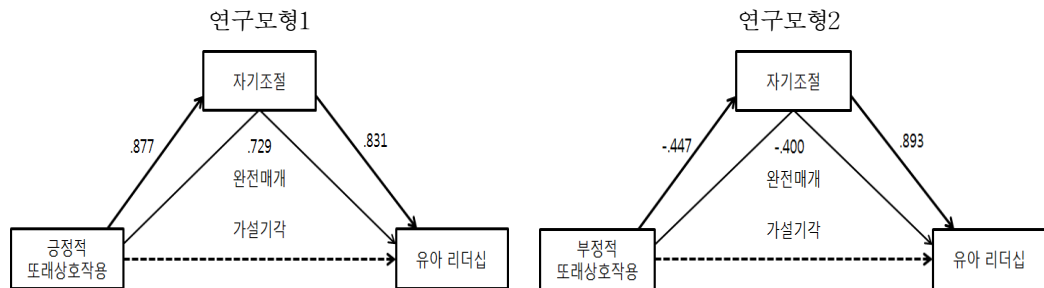
또래상호작용과 자기조절 그리고 리더십간의 영향관계에서 자기조절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연구모형의 간접효과 검증(bootstrapping)

	간접효과 (자기조절)		β	95%CI		<i>p</i>
		→		Lower	Upper	
연구모형1 긍정적 → 긍정적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유아리더십	.729	.557	.908	.010
연구모형2 부정적 → 부정적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유아리더십	-.400	-.491	-.308	.010

***p*<.01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이 유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유아 자기조절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연구 모형1에서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이 유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중 자기조절의 정적인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beta=.729$, $p<.01$, ($\beta=.400$, $p<.01$, 유아 또래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유아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이 기각됨에 따라 연구 모형1은 완전매개 모형으로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의 모든 효과는 자기조절을 매개해서 유아리더십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림 2] 연구모형 검증 결과

연구 모형2에서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이 유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중 자기조절이 부적인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beta=-.400$, $p<.01$. 유아 또래의 부정적 상호작용이 유아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이 기각됨에 따라 연구 모형2는 완전매개모형으로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의 모든 효과는 자기조절을 매개해서 유아리더십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모형 1, 2를 통한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그림 2와 같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자기조절 및 리더십 간의 관계에 기초하여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이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조절의 매개 변인

역할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은 자기조절 및 리더십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은 부정적 또래상호작용보다 유아의 자기조절 및 리더십과 정적 상관 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과 리더십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이미 여러 연구(김수영, 2013; 문혁준, 2010; 서기남, 2009; 허소영, Gottman, Gonso, & Rasmussen, 1975)를 통해 입증되었다. 최권숙(2013)은 또래와의 협동 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및 리더십 발달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서기남(2009)은 긍정적인 또래상호작용이 많은 유아일수록 교사로부터 리더십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였으며, 문혁준(2010)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많은 유아에게 친사회적 리더십이 높게 나타나고 부정적인 상호작용 행동이 많은 유아는 사회적 지배행동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긍정적인 또래상호작용이 유아의 리더십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또래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유아는 상대방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또래로부터 바람직한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긍정적인 관계를 지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유아 리더십의 향상을 위해서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기반을 둔 활동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유아 사회성 발달에 출발점인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는 또래놀이를 통해 또래상호작용과 사회성을 배우기 때문에 유아의 또래놀이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과 자기조절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이 많은 유아일수록 높은 자기조절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또래와 협동적이고 돕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는 유아가 또래의 정서를 이해하는 감정이입 능력이 우수하며 자신의 감정이나 충동을 잘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위영희, 2004). 또한 유아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기에만 급급하기보다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과 비슷한 다른 친구들의 경험에 감정을 이입하게 되고, 나아가 타인의 행동을 보며 자신의 행동도 평가하게 됨으로써 자기통제력을 기르게 되고, 협동을 통해 다른 유아를 이해하고 공감할 뿐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스스로 조절하여 적절하게 선택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이연실, 2010; 이정란, 2003).

그리고 유아의 자기조절과 리더십 간에도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여러 선행연구결과(김수영, 2013; 노현미, 박인전, 2009; 임연자, 2013; 이정란, 2003; 최미숙, 최외선, 홍성희, 허소영, 황윤세, 2010)와도 일치하고 있다. 이는 유능한 유아 리더는 부정적 정서와 충동적 행동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자기조절능력을 포함하는 사회적 유능감이 높고, 또래와의 상호관계에서 자신의 인지 및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자기조절이 뛰어난 유아일수록 친구관계에서 주도적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아 리더십이 자기 조절력이라는 개인적 변인에 의해 예측 및 강화되는 점이 큰 만큼, 유아들의 또래관계라는 거시적 측면에 그치지 않고 유아 한 명 한 명의 인지적 성숙과 정서적 안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미시적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유아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함에 있어 유아들이 또래와 함께 각종 놀이와 체험활동의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아 개개인이 내면적으로 정서 조절 및 자기 통제의 측면에서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이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조절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아의 긍정적·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이 유아 리더십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유아의 자기조절에 대한 또래상호작용의 직접효과, 유아 리더십에 대한 자기조절의 직접효과, 긍정적·부정적 또래상호작용→자기조절→리더십의 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유아의 자기조절은 유아 또래상호작용과 리더십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아의 자기조절이 리더십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유아기 때부터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잘 이끌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실천할 수 있는 유아는 자기가 맡은 일이 잘 이루어지면 자신감을 갖고, 일이 잘못될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지려는 태도를 갖게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감과 신뢰감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Kopp(1982)는 자기통제가 리더십 개발을 향상시킨다고 설명하였으며, 국내외 다수 연구에서 긍정적인 자기조절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유아는 친사회적 능력이 높고 타인의 감정에 적절하게 반응하며,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리더십 기술이 더욱 발달된다는 점이 밝혀져 이러한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김수영, 2013; 심희옥, 2000; 임연진, 2002; 허소영, Denham, Blair, DeMulder, Levita, Sawyer, Auerbach-Major, & Queenan, 2003; Gottman, 1983).

또한 다수의 연구에서 유아의 또래관계와 자기조절의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자기조절에 대한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의 직접효과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Ramani, Brownell, Campbell(2010)은 충동 억제 능력이 높은 유아들은 또래와의 친밀하고 긍정적인 놀이에 더 자주 참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덜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보다 앞선 Coie, Dodge와 Kupersmidt(1990)의 연구에서는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자기통제능력이 높고, 또래에게 인기가 있는 아동은 또래에게 거부된 아동에 비해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agwell, Newcomb와 Bukoski(1998)도 또래로부터 정서적인 지지를 많이 받은 유아일수록 대처능력과 자기조절이 높으며 외현적 또는 정서적 문제행동을 적게 나타내어 학령기 이후에도 사회생활에 적응을 잘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반면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한 유아의 경우에는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단독놀이를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Eisenberg & Fabes, 1992; Rubin & Coplan, 1998). 또, Geangu, Benga, Stahl과 Striano(2011)는 유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또래와 소통하며 그들에게 공감하는 반응은 다양한 자기조절 및 규제 전략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였다.

만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놀이성 및 자기조절과 리더십의 관계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둔 이연실(2011)의 연구결과에서 놀이성의 하위변인들인 사회적 자발성과 인지적 자발성은 자기조절의 하위변인인 자기평가를 통해 리더십의 하위변인들인 주도성과 사교성에 직·간접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여기서 자기조절이 놀이와 리더십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리더십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인지·정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유아들이 자신의 감정과 인지 능력을 조절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유아교육기관은 다양한 놀이와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아의 리더십은 또래상호작용과 자기조절에 의해 예측되며, 자기조절은 또래상호작용에 의해 강화되어 리더십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매개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매개효과를 고려할 때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이 리더십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고 자기조절이라는 매개변인을 거쳐 리더십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관계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자기조절은 두 변인 간의 완전매개변인으로서 큰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또래 유아 간의 놀이와 협동을 통한 상호작용과 더불어 유아의 정서조절 및 자기통제능력과 같은 개인적인 측면에 동시에 관심을 기울일 때, 이러한 변인들의 매개적 상승 작용을 통해 효과적인 유아 리더십 교육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역할극이나 조별 놀이 등의 또래 기반 활동을 늘리는 한편 여러 활동에서 각 유아가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이나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을 세심히 관찰하며, 가능한 이를 또래와 함께 또는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지도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언하여 지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리더십의 향상을 위해서는 이를 유아기 때부터 진단하고 적절한 발달을 위해 도와주어야 한다는 Nelson(2011)의 견해와 같이, 무엇보다 각 유아에 대한 교사의 세심한 관찰과 배려가 요구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의 대상이 만 4.5세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결과를 전 연령층의 유아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연령층의 유아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더 포괄적인 결과를 얻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타 연령대와 비교를 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둘째, 연구문제에서 설정된 변수들은 여러 유아를 가장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된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에 의해 측정되었으나, 유아의 자기조절에 있어서는 교육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드러나는 측면도 적지 않다. 또한 리더십의 경우 교사가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놀이나 협동 상황 이외에도 유아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서로 간의 심리적 측면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 대상 설문이나 유아와의 면담 등을 보완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변수들 간의 관계와 매개변수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유아의 성별은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남아와 여아 간 또래상호작용 방식의 차이나 자기조절의 차이를 규명하고 있는 만큼, 추후 연구에서는 또래상호작용과 자기조절능력과 같은 변수가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유아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다양하다. 유아기는 사회-정서발달에 결정적인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과 자기조절 변인으로만 한정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유아 리더십 형성을 위해 유아 리더십 관련 변인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유아 리더십 교육에서 주목해야 할 요소로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과 자기조절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아의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한다면 효과적인 리더십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리더가 될 유아들의 올바른 성장과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인숙, 문혁준 (2012).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 및 놀이신념과 유아리더십이 유아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6(5), 233-252.
- 고종욱, 류철 (2011). **SPSS를 활용한 사회과학 통계분석**. 서울: 그린.
- 교육과학기술부 (2013). **유치원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김성숙 (2009). 유아 리더십 유형 검사 도구 개발 및 타당화.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미, 김현주 (2015). 그림책을 활용한 인성교육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1), 231-247.
- 김정효 (2006). **아동리더십 : 인성교육의 열쇠**. 서울: 교육과학사.
- 노인순 (201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유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현미, 최외선, 박인전 (2009).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친구관계 및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2), 281-292.
- 노형진 (2011). **AMOS로 배우는 구조방정식모형**. 서울: 학현사.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with AMOS 17.0**. 서울: 학지사.
- 문혁준 (2010). 취학전 남아와 여아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기질, 또래 상호작용,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가정환경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1(1), 35-46.
- 박민영 (2014). 유아의 자기조절과 어머니의 명령적 언어통제가 유아의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연경 (2009). 유아 리더십 유형화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보건복지부 (2013). **건강한 국민, 행복한 대한민국**. 서울: 보건복지부.
- 서기남 (2009). 유아의 리더십과 관련된 변인 연구: 유아의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심희옥 (2000). 또래지지와 대인관계 갈등 대처방법 및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1(1), 19-33.
- 양옥승 (2006). 3-6세 유아의 자기조절 측정척도 개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2), 161-187.
- 양옥승 (2013). 영아 자기조절 능력 측정척도의 개발. **유아교육연구**, 33(2), 427-443.
- 위영희 (2004). 유아의 정서 능력과 또래 유능성. **교육발전학회지**, 23(1), 137-158.
- 이광자 (2014). 유아의 자아탄력성, 가족건강성, 또래상호작용과 유아리더십의 관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명숙 (2006). 또래관계에서의 유아리더십 양상과 성 및 인기도와와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1(1), 85-106.
- 이명숙, 조희정 (2005).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적합한 유아 리더십교육. **아동복지연구**, 3(2), 141-159.
- 이미나, 정주선 (2012). 유아의 리더십과 놀이표현력과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12(2), 147-161.
- 이순규 (1994). 자기조절 학습훈련이 아동의 자주적 학습태도 및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연실 (2010). 유아의 자기조절과 리더십과의 관계.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4(3), 151-174.
- 이연실 (2011). 유아의 놀이성과 리더십과의 관계에서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7(2), 101-135.
- 이정란 (2003). 유아의 자기조절 구성 요인 및 관련 변인에 대한 구조 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채호, 이찬숙 (2009). 유아 리더십과 사회적 능력, 기질 및 어머니 양육태도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4), 289-303.
- 이채호, 최인수 (2008). 교사용 유아 리더십 평가척도 개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3), 23-37.
- 이화정 (2013). 유아의 또래지위에 따른 또래 간 상호작용 및 창의적 리더십의 차이.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연진 (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 113-124.
- 정유정 (2008). 유아 셀프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유정, 이해상, 김규수 (2008). 유아 셀프 리더십 프로그램이 유아의 셀프 리더십과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3(3), 277-293.
- 정희옥, 박병기, 최성욱, 강일국 (2003). **지도력 진단도구 개발 연구**. 연구보고 RR 2003-15-2.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차배근, 차경옥 (2013). **사회과학연구방법: 실증연구의 원리와 실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최미숙, 홍성희, 임연자 (2013). 유아의 리더십과 자기조절능력 및 놀이성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80, 109-129.
- 최소영, 신혜영 (2015). 유아의 놀이성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2), 311-329.
- 최수경, 박인전 (2012). 유아의 놀이성, 사회적 유능감, 리더십 간의 구조 관계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70, 55-76.
- 최혜영 (2004).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과 교사신념 및 교사행동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허소영, 김수영 (2013). 유아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정환경 변인분석. **아동교육**, 22(3), 231-244.
- 허태근 (2015). 유아리더십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2(1), 145-165.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황윤세 (2010). 유아의 리더십과 자기조절 간의 관계. **변형영유아교육연구**, 4(2), 115-129.
- Arnott, L. (2013). Are we allowed to blink? : Young children's leadership and ownership while mediating interactions around technolog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Years Education*, 21(1), 97-115.
-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Coie, J. D., Dodge, K. A., & Kupersmidt, J. B. (1990). Peer group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ryn, C. L. S., Spybrook, J. K., Evergreen, S. D. H., & Blinkiewicz, M. V. (2009).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he social-emotional learning scale.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27*(3), 283-295.
- Denham, S. A., Blair, K. A., DeMulder, E., Levita, J., Sawyer, K., Auerbach-Major, S., & Queenan, P. (2003). Preschool emotional competence: Pathway to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47*(1), 238-256.
- Eisenberg, N., & Fabes, R. A. (1992). Young children's coping with interpersonal anger. *Psycscan Developmental Psychology, 6*(1), 116-128.
- Fantuzzo, J. W., Coolahan, K., Mendez, J., McDermott, P., & Sutton-Smith, B. (1998). Contextually-relevant validation of peer play construct with African American head start children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3*(3), 411-431.
- Geangu, E., Benga, O., Stahl, D., & Striano, T. (2011).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s' emotional resonance to a peer in distress : Self-other awareness and emotion 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20*(3), 450-470.
- Gottman, J. (1983). How Children Become Friend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1*-86.
- Gottman, J., Gonso, J., & Rasmussen, B. (1975). Social interaction, social competence, and friendship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46*(3), 709-718.
- Kopp, C. B. (1982). Antecedent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99-214.
- Nelson, A. E. (2011). Leadership aptitude. *Leadership Excellence, 28*(3), 16-17.
- Ramani, G. B., Brownell, C. A., & Campbell, S. B. (2010). Positive and negative peer interaction in 3- and 4-year-olds in relation to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71*(3), 218-250.
- Rubin, K. H., & Coplan, R. J. (1998). Social and nonsocial-play in childhood: An individual differences perspective. In O. N. Saracho, & B. Spodek (Eds.), *Multiple perspective on play in early children education* (pp.144-170).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Totan, T. (2014). The canonical effect of task articulation, peer relations, and self-regulation based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needs to fields of self-efficacy. *Education and Science, 39*(171), 331-343.
- Zins, J. E., & Elias, M. J. (2007).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al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Consultation, 17*(2-3), 233-255.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interaction, self-regulation and leadership of young children, and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regulation ability in the effect of peer interaction on the leadership of young children.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11 children aged 4 to 5 who attended in child education institutes in the Seoul-Incheon area. A survey was conducted on teachers who worked in kindergartens and day care centers with questionnaire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For data analysis, SPSS WIN 21 program was used to calculate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and kurtosis, and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Also,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validated using Amos 21,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irst, the positive peer interaction, self-regulation and leadership of children were positively associated. Second, the peer interac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leadership of young children, and the self-regulation of young childre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leadership of young children. It was found that peer interac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elf-regulation of young children, and in the relationship of effects on the leadership of young children, the self-regulation was found to play a role of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Such results are remarkable elements in leadership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implying the importance of peer interaction and self-regulation of young children.

▶*Key Words* : *peer interaction, self-regulation, leadership of young children*

논문투고 2015. 04. 15.
수정원고접수 2015. 07. 14.
최종게재결정 2015. 07. 25.